

제주건축물의 지역별 및 외피디자인 요소별 특징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Research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sign Factors of Buildings Skin in Jeju Province

Author 김태일 Kim, Tea-Il /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양 건 Yang, Gun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성호 Lee, Seong-Ho / 정회원, 제주관광대학 디자인경영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trying every effort to be presented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with unique combination of history, culture and landscap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we can find in buildings in Jeju province. The main purpose is to provide basic and informative materials for the landscape formation of Jeju by investigating current status of buildings in Jeju province. This research divides Jeju province into 34 areas and categorizes buildings by use. 2,973 cases in total are collected and analyzed their architectural features. A basic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s conducted in the first and the second stages. And In the third stage, 505 cases whose addresses can be identified are selected for the in-depth analysis of the registered building data on architecture year, building area, and total area. These data are analyzed by the categories of region, year, and size for the stud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in Jeju. The results show that territoriality is weak because of the simplicity of building layout on the streets. Exterior form of buildings, streetscape image, and overall city image are tedious and boring because of the lack of the variety of façade and exterior finishing materials.

Keywords 제주건축, 지역적 특징, 디자인 요인
Jeju Architecture, Characteristic in Region, Design Facto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0년대의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2000년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제주의 도시와 농촌사회를 적지 않게 변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제주가 가진 고유의 경관 역시 변화되기도 하였다. 제주다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98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제주의 도시와 건축물에 대한 제주의 지역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건축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건축 관련 단체의 활동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에서는 개별건축심의를 통해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과 산북으로 구분되는 지역적 여건과 도로와의 관계, 마감

재료 등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과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관형성에 있어서 행정건축물의 공공적 성격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상업건축물의 입면색채를 다룬 박소영 외(2003), 가로경관의 건축물 입면구성유형과 색채 특성을 다룬 박성진(2006), 건축물 외피디자인을 다룬 인진영(2009), 가로변 건축물 형태구성요소를 다룬 조현득(2010)의 연구논문이 있으나, 이들 논문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논문이며 전반적인 외부디자인 요소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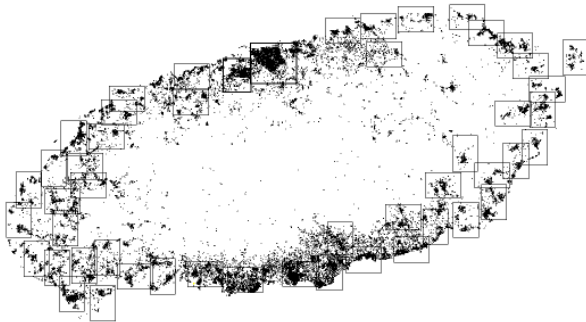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위에 본 제주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지역별 건축물의 현황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관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특히 행정건축물에 대한 현황 분석자료를 얻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용도별 건축물로 구분하여 행정시설, 생산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광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별로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인공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구조물의 현황자료를 수집하는 기초단계의 분석이다. 인공구조물의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지역을 크게 산남과 산북, 그리고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현황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1> 건축물 밀집현황에 따른 현황조사 지역

조사기간은 2007년 11월~2007년 12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지역은 총 34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그림 1> 개별건축물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아울러 인공구조물 조사에서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개별건축물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사례수는 총 2973사례이다.

기본적으로 조사표에 의해 수집된 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악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은 ①구조, ②외부 주요 재료, ③주조색, ④지붕재료, ⑤지붕형태, ⑥지붕마루의 방향(도로와의 관계), ⑦파사드의 형태 총 7항목이다.

2단계는 보다 구체적인 건축물의 세부특징분석단계이다. 수집된 총 2973사례 자료가 일부 항목별로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제주도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통계 분석상의 한계가 있어서 분석 가능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산남과 산북, 그리고 동쪽과 서쪽, 4개지역군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읍면사무소의 소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①구제주시²⁾ ②구서귀포시 ③조천 ④한

림 ⑤한경 ⑥우도 ⑦표선 ⑧대정 지역을 선정하여 대상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즉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1단계자료정리에서 주소파악이 가능한 건축물 총 505사례(총 586사례를 선정하였으나 통계분석에 적합한 사례는 총 505사례였음)를 선정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①건축연도, ②건축면적, ③연면적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를 지역별 혹은 연도별로 규모별로 구분하여 종합 분석하여 봄으로서 제주도 건축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2> 연구대상 지역

<표 1> 용도별 건축물 분류

구분	종류
행정시설	-시청 및 동사무소, 읍, 면사무소, 어촌계사무소 등 -마을회관, 우체국, 보건소, 농협 및 수협 등 은행
생산시설	-일정 규모의 공장 및 양식장, 발전소, 농협 및 수협 창고 등
주거시설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지역 4층이상의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상업시설	-쇼핑센터, 대형마켓, 백화점 등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교육시설 등
관광시설	-행정허가를 받은 호텔, 펜션 등
종교시설	-독립된 시설물
기타	-송전탑, 하수종말 처리장 등

2. 용도별 건축물의 기초특징분석

수집 정리된 총 2,973건의 사례를 7항목을 중심으로 제주건축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다.<표 2> 분석대상물은 행정시설물이 많았고 다음이 교육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특징을 보면, 벽체재료의 경우 페인트에 의한 마감이가장 많았고 다음이 타일 종류와 화강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페인트에 의한 외장 마감이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축물 외관과 가로풍경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조색에 있어서는 레드 계열이 많은 편이고 다음이 베이지계열, 그레이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시설의 경우 베이지계열이 많고 행정시설의 경우 화이트계열과 그레이계열, 레드계열, 베이지계열 등 여러

1) 우도를 제외한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등의 부속섬은 제외하였다.
2)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구제주시,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은 제주시로 편입되었으며, 구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은 서귀포시로 편입되었다.

가지 계열의 색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된 마감색이 없이 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초분석단계에서 수집된 건축물의 용도별 요소별 특징

		행정 시설	생산 시설	주거 시설	상업 시설	문화 및 전시 시설	교육 시설	관광 시설	종교 시설	기타	합계
벽체 재료	페인트	122	29	14	15	2	65	9	45	1	302
	타일	39	3	2	19	12	10	17	34	-	136
	드라이버트	-	-	3	1	4	5	16	2	-	31
	제주석	17	1	-	-	6	2	1	10	-	37
	화강석	49	-	1	-	-	1	1	-	-	52
	기타	58	24	-	6	1	-	4	7	-	100
주조색	화이트계열	46	14	7	9	2	1	13	19	-	111
	블랙 계열	7	3	-	-	-	1	-	23	1	35
	그린 계열	4	2	1	-	-	4	-	2	-	13
	블루 계열	-	4	-	-	-	2	-	1	-	7
	그레이계열	51	12	1	19	7	2	5	8	-	105
	레드 계열	65	6	2	9	4	12	9	32	-	139
	베이지계열	37	14	8	3	2	42	16	10	-	132
	기타	1	-	-	3	-	4	-	-	-	8
	지붕 재료	콘크리트	200	23	3	34	7	55	25	41	1
아스팔트 싱글		10	-	14	2	3	28	15	15	-	87
기와		26	2	1	1	2	2	2	21	-	57
제주석		-	-	-	-	6	2	-	-	-	8
기타		5	31	-	3	2	-	1	18	-	60
지붕 형태	평지붕	195	21	7	36	7	57	10	38	1	372
	박공지붕	10	31	11	6	1	14	10	37	-	120
	모임지붕	11	1	-	1	3	2	9	2	-	29
	볼트형지붕	-	-	-	-	-	11	-	-	-	11
	함각지붕	-	-	-	-	-	-	-	18	-	18
기타	3	2	8	-	5	6	14	12	-	50	
지붕 마루의 방향	수평	213	19	-	33	4	41	10	24	-	344
	수직	16	15	5	10	-	12	33	39	1	131
	기타	-	21	-	-	12	24	-	32	-	89
합계	1,185	278	88	210	92	405	220	490	5	2,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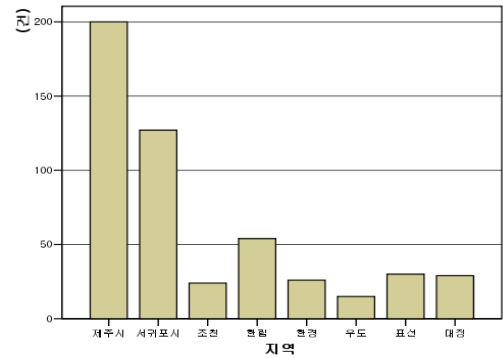
지붕재료를 보면, 콘크리트마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아스팔트싱글이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이 많았고 다음이 박공지붕형태와 모임지붕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시설, 교육시설의 경우 평지붕, 생산시설과 종교시설은 박공지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공 혹은 모임지붕을 권장해온 건축심의의 결과와는 달리 평지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축심의가 적용되었던 시기의 여부와 심의대상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흥미 있는 점은 거의 모든 용도건축물에 있어서 박공형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평지붕 역시 행정, 상업, 교육, 종교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공간사용의 편의성 내지는 시공비용 등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특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괄되게 지붕의 형태를 결정지어 심의하기 보다는 건축의 규모와 주변 환경, 그리고 특히 대상건축물의 디자인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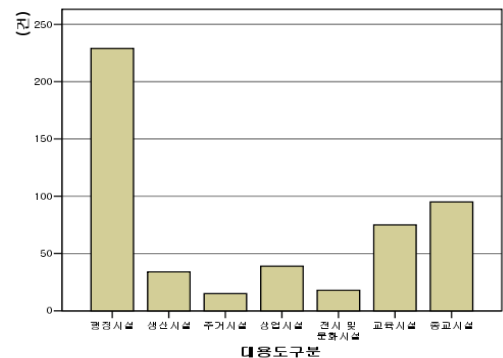
3. 건축물의 항목별 세부특징분석

3.1. 항목별 일반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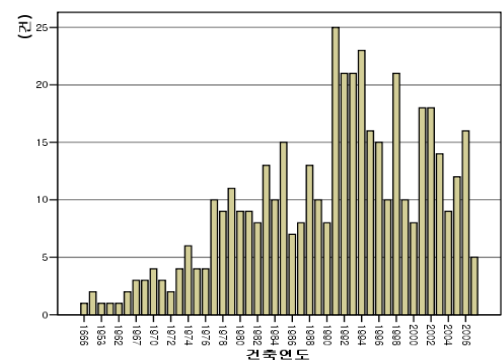
보다 세부적인 건축물 특징분석과 체계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기초분석단계의 자료 중 주소파악이 가능한 건축물 총 505사례를 분류 선정하여 행정기관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①건축연도, ②건축면적, ③연면적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세부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림 3> 지역적 분포



<그림 4> 용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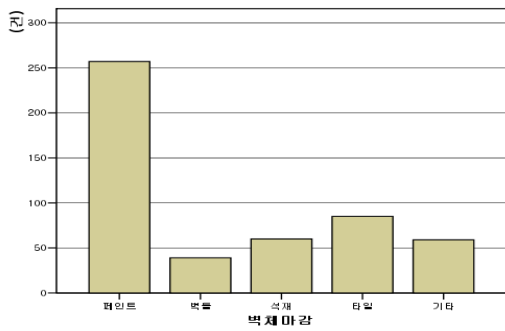
<그림 5> 건축물의 건축연도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구제주시가 많고 다음이 구서귀포시, 한림읍, 표선면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대용도구분에 있어서는 행정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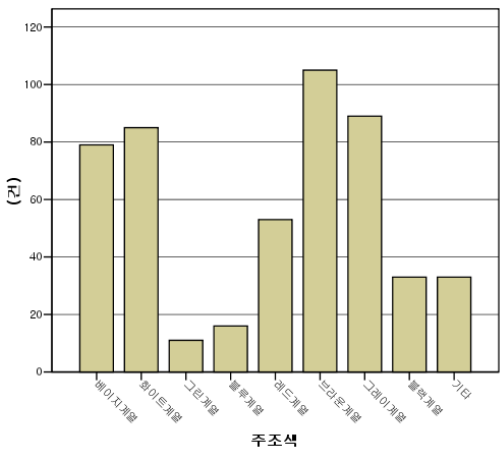
으로 많았다.<그림 4> 건축연도는 1992년~1995년, 1998년, 2001년~2002년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5>

건축물의 벽체외부 마감재료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나 페인트가 가장 많고 타일, 석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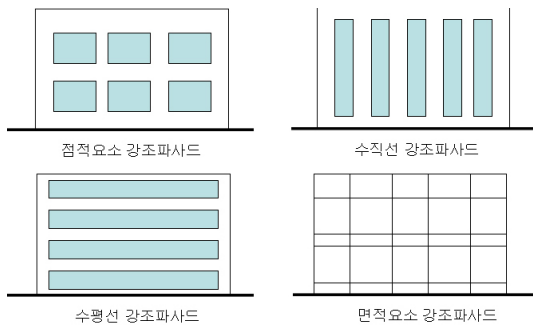
건축물 외부의 주조색은 브라운계열과 그레이계열이 많고 화이트계열과 베이지계열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그림 7> 건축물 외부의 주조색은 외벽의 마감재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벽체의 주 마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와 타일들이 이들 계열의 색으로 마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건축물의 외부벽체 마감재료



<그림 7> 건축물의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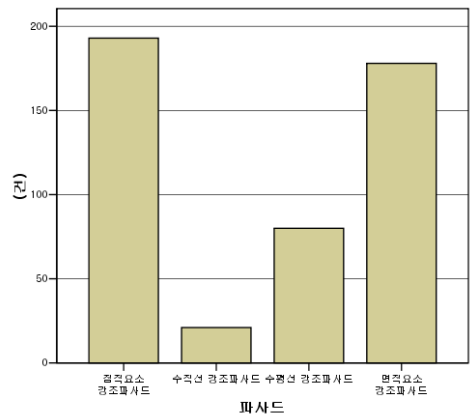


<그림 8> 건축물 파사드의 구분

건축물의 입면(파사드)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입면의 패턴과 창문의 형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³⁾하면 크게 4가지, 점적요소 강조파사드, 수직선요소 강조파사드, 수평선요소 강조파사드, 면적요소 강조파사드로 나눌 수 있다.<그림 8> 4가지 파사드의 실례는 <표 3>과 같다.

<표 3> 건축물 파사드 형태 분류 예시

구분	사진	
점적요소 강조파사드		
수직선 강조파사드		
수평선 강조파사드		
면적요소 강조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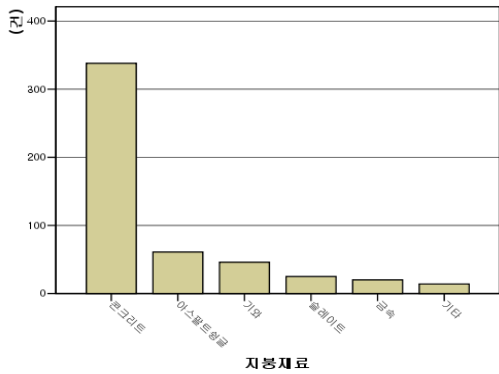


<그림 9> 건축물의 파사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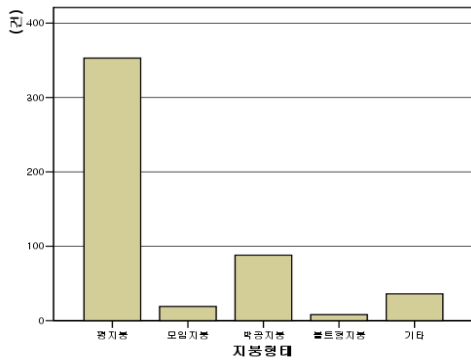
면적요소 강조파사드는 가로 및 세로의 구조물이 격자

3) 디터프린츠, 단지환경계획방법, 박찬무 역, 1992, p.199에서는 그리드파사드, 구멍뚫린 파사드, 수직성 강조파사드, 수평성 강조파사드로 구분하고 있으나 용어사용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파사드 구분요소를 점적요소 강조파사드, 선적요소 강조파사드, 면적요소 강조파사드로 수정 정리하였다.

형태로 구성되고 그 속에 개구부가 구성되는 형태이며, 점적요소 강조파사드는 구조물에 의한 특별한 장식없이 단순한 사각형의 개구부만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수직성 요소 강조 파사드와 수평성요소 강조 파사드는 연속적인 개구부에 의해 각각 수직과 수평적인 형태로 구성된 입면형태를 의미한다. 수직성 강조 파사드와 수평성 강조 파사드는 연속적인 개구부에 의해 각각 수직과 수평적인 형태로 구성된 입면형태를 의미한다.



<그림 10>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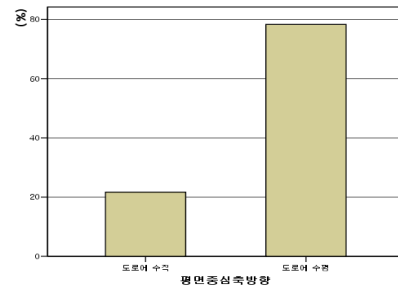
<그림 11> 건축물의 지붕형태

총 505사례에 대한 파사드는 점적요소강조 파사드와 면적요소 강조파사드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9> 즉 파사드에 있어서 특정한 건축의장적 요소가 강조되기 보다는 평탄하고 폐쇄적으로 개구부만이 강조되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파사드를 가진 건축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재료는 압도적으로 콘크리트재료가 많고 다음이 아스팔트 싱글, 기와 슬레이트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0> 이는 일반적으로 지붕재료는 지붕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총 505 사례의 지붕형태를 보면 <그림 11>, 평지붕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박공지붕인데 평지붕의 특성상 특별한 마감 없이 콘크리트로 마감되는 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붕형태에 있어서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의 경우,

도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 건축물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박공의 방향이 도로에 대하여 수직인 형태 혹은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놓인 수평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박공지붕형태의 건축물이 도로에 배치된 방향을 보면<그림 12>, 수평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건축연도와 도로형태, 부지의 조건 등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도로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의 파사드 및 건축물의 개방성과 부지 내 외부공간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에 대하여 수직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의 지붕마루방향

3.2. 행정권역 건축특징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과 산북으로 구분되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최근 행정구조의 개편에 따른 행정권역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여 보았다. 행정권역별 건축물 특징분석은 주요 검토요소를 지붕형태와 지붕재료, 그리고 파사드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여 보았다.

<표 4> 행정권역별 지붕형태 특징 ($\chi^2=15.117$ $df=4$ $P<0.004$)

	지붕형태					전체
	평지붕	모임지붕	박공지붕	볼트형지붕	기타	
제주시	224 70.4%	8 2.5%	66 20.8%	3 0.9%	17 5.3%	318 100.0%
서귀포시	129 69.4%	11 5.9%	22 11.8%	5 2.7%	19 10.2%	186 100.0%
전체	353 70.0%	19 3.8%	88 17.5%	8 1.6%	36 7.1%	504 100.0%

<표 4>는 행정권역별 지붕형태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지붕과 박공지붕의 형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권역별로는 평지붕의 비율은 거의 같으나 박공지붕은 제주시 20.8%, 서귀포시 11.8%로 제주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모임지붕, 볼트형 지붕, 기타 다른 형태의 지붕의 비율이 높고 특히 기타 다른 형태의 지붕의 비율이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나타나 다소 다양한 지붕형태의 건축물이 산재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행정구조개편 이전 건축심의위원회의 적용심의

기준상의 차이점, 관광시설물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형태의 차이점은 지붕의 마감재료에 있어서도 차이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지붕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례하여 콘크리트마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아스팔트 씬글이 다음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에 비해 슬레이트와 금속성 재료의 마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아스팔트 씬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제주시의 경우 비록 콘크리트의 비율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마감 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서귀포시 역시 콘크리트의 비율이 높으나 아스팔트씬글과 기와의 마감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그러나 행정권역별 파사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표 6>, 유의수준 0.005보다 높게 나타나 행정권역별 차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권역별로 지붕형태와 지붕재료의 차이성은 있으나 파사드상의 차이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사드 보다는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많은 규제와 계획상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5> 행정권역별 지붕재료 특징(x²=17.128 df=5 P<0.004)

	지붕재료						전체 (빈도) (가로%) (세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씬글	기와	슬레이트	금속	기타	
제주시	218 68.6%	31 9.7%	27 8.5%	19 6.0%	18 5.7%	5 1.6%	318 100%
서귀포시	120 64.5%	30 16.1%	19 10.2%	6 3.2%	2 1.1%	9 4.8%	186 100%
전체	338 67.1%	61 12.1%	46 9.1%	25 5.0%	20 4.0%	14 2.8%	504 100%

<표 6> 행정권역별 파사드 특징(x²=2.840 df=3 P<0.417)

	파사드				전체 (빈도) (가로%) (세로%)
	점적요소 강조 파사드	수직성요소 강조파사드	수평성요소 강조파사드	면적요소 강조파사드	
제주시	124 42.0%	11 3.7%	45 15.3%	115 39.0%	295 100%
서귀포시	69 39.0%	10 5.6%	35 19.8%	63 35.6%	177 100%
전체	193 40.9%	21 4.4%	80 16.9%	178 37.7%	472 100%

3.3. 용도별 건축특징분석

용도별로 어떠한 건축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외벽마감, 건축물의 구조색, 그리고 지붕형태와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는 건축물의 용도와 외부벽체 마감재료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별로 뚜렷한 외부벽체 마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페인트(드라이피트 종류 포

함)에 의한 마감의 가장 많고 다음이 타일종류, 석재의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시설의 경우 페인트에 의한 외벽마감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이 타일(25.0%)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상업시설과 전시 및 문화시설은 타일종류에 의한 외벽 마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교시설의 경우는 페인트의 비율이 높으나 벽돌에 의한 외벽마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용도별 마감재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7> 용도별 외부벽체 마감의 관계(x²=174.376 df=24 P<0.000)

		벽체마감					전체 (빈도) (가로%) (세로%)
		페인트 (드라이피트 종류 포함)	벽돌	석재	타일	기타	
용도	행정 시설	95 41.7% 37.0%	12 5.3% 30.8%	33 14.5% 55.0%	57 25.0% 67.1%	31 13.6% 52.5%	228 100.0% 45.6%
	생산 시설	18 54.5% 7.0%	1 3.0% 2.6%	2 6.1% 3.3%	1 3.0% 1.2%	11 33.3% 18.6%	33 100.0% 6.6%
	주거 시설	13 86.7% 5.1%	0 .0% .0%	2 13.3% 3.3%	0 .0% .0%	0 .0% .0%	15 100.0% 3.0%
	상업 시설	13 33.3% 5.1%	0 .0% .0%	6 15.4% 10.0%	13 33.3% 15.3%	7 17.9% 11.9%	39 100.0% 7.8%
	전시 및 문화 시설	4 22.2% 1.6%	1 5.6% 2.6%	4 22.2% 6.7%	9 50.0% 10.6%	0 .0% .0%	18 100.0% 3.6%
	교육 시설	62 86.1% 24.1%	0 .0% .0%	0 .0% .0%	4 5.6% 4.7%	6 8.3% 10.2%	72 100.0% 14.4%
	종교 시설	52 54.7% 20.2%	25 26.3% 64.1%	13 13.7% 21.7%	1 1.1% 1.2%	4 4.2% 6.8%	95 100.0% 19.0%
	전체	257 100.0%	39 100.0%	60 100.0%	85 100.0%	59 100.0%	500 100%

<표 8> 용도별 구조색의 관계(x²=435.72 df=48 P<0.000)

		구조색								전체 (빈도) (가로%) (세로%)	
		베이 지계 열	화이 트계 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	레드 계열	브라 운계 열	그레 이계 열	블랙 계열		기타
용도	행정 시설	9 3.9% 11.4%	44 19.2% 51.8%	4 1.7% 36.4%	11 4.8% 68.8%	3 1.3% 5.7%	93 40.6% 88.6%	49 21.4% 55.1%	7 3.1% 21.2%	9 3.9% 27.3%	229 100.0% 45.4%
	생산 시설	13 38.2% 16.5%	9 26.5% 10.6%	1 2.9% 9.1%	3 8.8% 18.8%	2 5.9% 3.8%	0 .0% .0%	5 14.7% 5.6%	1 2.9% 3.0%	0 .0% .0%	34 100.0% 6.7%
	주거 시설	5 33.3% 6.3%	4 26.7% 4.7%	1 6.7% 9.1%	0 .0% .0%	2 13.3% 3.8%	0 .0% .0%	2 13.3% 2.2%	0 .0% .0%	0 .0% 3.0%	15 100.0% 3.0%
	상업 시설	4 10.3% 5.1%	8 20.5% 9.4%	0 .0% .0%	0 .0% .0%	0 .0% .0%	6 15.4% 5.7%	19 48.7% 21.3%	0 .0% .0%	2 5.1% 6.1%	39 100.0% 7.7%
	전시 및 문화 시설	3 16.7% 3.8%	0 .0% .0%	0 .0% .0%	0 .0% .0%	3 16.7% 5.7%	0 .0% .0%	6 33.3% 6.7%	0 .0% .0%	6 33.3% 18.2%	18 100.0% 3.6%
	교육 시설	37 50.0% 46.8%	1 1.4% 1.2%	3 4.1% 27.3%	0 .0% .0%	16 21.6% 30.2%	1 1.4% 1.0%	1 1.4% 1.1%	0 .0% .0%	15 20.3% 45.5%	74 100.0% 14.7%
	종교 시설	8 8.4% 10.1%	19 20.0% 22.4%	2 2.1% 18.2%	2 2.1% 12.5%	27 28.4% 50.9%	5 5.3% 4.8%	7 7.4% 7.9%	25 26.3% 75.8%	0 .0% .0%	95 100.0% 18.8%
	전체	79 100.0%	85 100.0%	11 100.0%	16 100.0%	53 100.0%	105 100.0%	79 100.0%	33 100.0%	33 100.0%	504 100%

페인트에 의한 마감비율이 높은 것은 공사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성, 즉 마감재료의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공간적 기능, 그리고 주변의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고려하여 계획되지 못하고 경제성에 초점을 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별건축물과 가로,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외벽 마감재료의 사용은 개별 건축물의 주조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표 8>은 용도별 건축물의 주조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브라운계열의 주조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그레이계열, 화이트계열 그리고 베이지색 계열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별 주조색을 보면, 브라운계열과 그레이계열의 비율이 높고, 생산시설은 베이지와 화이트계열이, 교육시설은 베이지색 계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레드 계열과 블랙계열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주거시설과 전시 및 문화시설은 특정한 주조색이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석사례수가 적은 점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용도별 지붕형태의 관계 (x²=240.985 df=24 P<0.000)

	지붕형태					전체 (빈도) (가로%) (세로%)
	평지붕	모임지붕	박공지붕	볼트형 지붕	기타	
	200	12	9	0	8	229
행정시설	87.3% 56.7%	5.2% 63.2%	3.9% 10.2%	.0% .0%	3.5% 22.2%	100.0% 45.4%
생산시설	12 35.3% 3.4%	1 2.9% 5.3%	21 61.8% 23.9%	0 .0% .0%	0 .0% .0%	34 100.0% 6.7%
주거시설	7 46.7% 2.0%	0 .0% .0%	8 53.3% 9.1%	0 .0% .0%	0 .0% .0%	15 100.0% 3.0%
용도 상업시설	34 87.2% 9.6%	1 2.6% 5.3%	3 7.7% 3.4%	1 2.6% 12.5%	0 .0% .0%	39 100.0% 7.7%
전시 및 문화시설	9 50.0% 2.5%	3 16.7% 15.8%	1 5.6% 1.1%	0 .0% .0%	5 27.8% 13.9%	18 100.0% 3.6%
교육시설	54 73.0% 15.3%	2 2.7% 10.5%	10 13.5% 11.4%	7 9.5% 87.5%	1 1.4% 2.8%	74 100.0% 14.7%
종교시설	37 38.9% 10.5%	0 .0% .0%	36 37.9% 40.9%	0 .0% .0%	22 23.2% 61.1%	95 100.0% 18.8%
전체	353 100.0%	19 100.0%	88 100.0%	8 100.0%	36 100.0%	504 100.0%

건축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중의 하나인 지붕과의 관련성을 보면<표 9>, 평지붕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박공지붕, 기타(변형된 형태의 지붕)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지붕형태를 보면, 행정시설과 상업시설은 각각 87.3%, 87.2%로 평지붕의 비율이 가장 높아 특정한 형태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생산시설은 박공지붕형태가 6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규모의 공장 및 양식장, 발전소, 농협 및 수협 창고 등을 포함하는 생산시설의 기능적 특성상 평지붕보다는 박공지붕의 형태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육시설은 평지붕(73.0%), 박공지붕(13.5%)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종교시설의 경우 평지붕(37.9%), 박공지붕(38.9%), 기타((23.2%)변형된 형태의 지붕)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지붕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4. 연도별 건축변화특징분석

기본적으로 건축물 외부벽체마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인트 종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타일종류였다. 마감재료의 사용비율은 특정한 재료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의 외부벽체마감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0> 1970년대 이전에서 2000년대 이후로 갈수록 페인트의 비중은 줄어들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석재와 타일, 기타재료의 사용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서는 페인트와 석재, 타일의 사용비율이 고르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 들어 기타 재료사용(비닐류 재료, 유리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재료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건축연도별 외부벽체 마감의 관계 (x²=58.876 df=12 P<0.000)

		벽체마감					전체 (빈도) (가로%) (세로%)
		페인트	벽돌	석재	타일	기타	
	1970년 이전	88 66.2% 34.2%	6 4.5% 15.4%	17 12.8% 28.3%	15 11.3% 17.6%	7 5.3% 11.9%	133 100.0% 26.6%
건축 연도 변경	1980년대	61 61.0% 23.7%	13 13.0% 33.3%	7 7.0% 11.7%	10 10.0% 11.8%	9 9.0% 15.3%	100 100.0% 20.0%
	1990년대	61 36.3% 23.7%	15 8.9% 38.5%	26 15.5% 43.3%	46 27.4% 54.1%	20 11.9% 33.9%	168 100.0% 33.6%
	2000년대 이후	47 47.5% 18.3%	5 5.1% 12.8%	10 10.1% 16.7%	14 14.1% 16.5%	23 23.2% 39.0%	99 100.0% 19.8%
	전체	257 100.0%	39 100.0%	60 100.0%	85 100.0%	59 100.0%	500 100.0%

<표 11> 건축연도별 파사드의 관계 (x²=19.323 df=9 P<0.023)

		파사드				전체 (빈도) (가로%) (세로%)
		점적요소 강조 파사드	수직성요소 강조파사드	수평성요소 강조파사드	면적요소 강조파사드	
	1970년 이전	65 50.8% 33.7%	1 .8% 4.8%	16 12.5% 20.0%	46 35.9% 25.8%	128 100.0% 27.1%
건축 연도	1980년대	40 41.7% 20.7%	3 3.1% 14.3%	19 19.8% 23.8%	34 35.4% 19.1%	96 100.0% 20.3%
	1990년대	51 32.7% 26.4%	13 8.3% 61.9%	32 20.5% 40.0%	60 38.5% 33.7%	156 100.0% 33.1%
	2000년대 이후	37 40.2% 19.2%	4 4.3% 19.0%	13 14.1% 16.3%	38 41.3% 21.3%	92 100.0% 19.5%
	전체	193 100.0%	21 100.0%	80 100.0%	178 100.0%	472 100.0%

<표 12> 건축연도별 지붕형태의 관계($\chi^2=28.322$ $df=12$ $P<0.005$)

		지붕형태					전체 (빈도) (가로%) (세로%)
		평지붕	모임지붕	박공지붕	볼트형지붕	기타	
건축연도	1970년 이전	78 58.6% 22.1%	3 2.3% 15.8%	30 22.6% 34.1%	3 2.3% 37.5%	19 14.3% 52.8%	133 100.0% 26.4%
	1980년대	71 70.3% 20.1%	4 4.0% 21.1%	20 19.8% 22.7%	2 2.0% 25.0%	4 4.0% 20.0%	101 100.0% 20.0%
	1990년대	126 74.1% 35.7%	11 6.5% 57.9%	22 12.9% 25.0%	2 1.2% 25.0%	9 5.3% 25.0%	170 100.0% 33.7%
	2000년대 이후	78 78.0% 22.1%	1 1.0% 5.3%	16 16.0% 18.2%	1 1.0% 12.5%	4 4.0% 11.1%	100 100.0% 19.8%
전체		353 100.0%	19 100.0%	88 100.0%	8 100.0%	36 100.0%	504 100%

<표 13> 건축연도별 평면중심축방향의 관계($\chi^2=12.632$ $df=3$ $P<0.006$)

		평면중심축 방향		전체 (빈도) (가로%) (세로%)
		도로에 수직	도로에 수평	
건축연도	1970년 이전	38 33.3% 41.8%	76 66.7% 23.1%	114 100.0% 27.1%
	1980년대	15 18.3% 16.5%	67 81.7% 20.4%	82 100.0% 19.5%
	1990년대	24 16.7% 26.4%	120 83.3% 36.5%	144 100.0% 34.3%
	2000년대 이후	14 17.5% 15.4%	66 82.5% 20.1%	80 100.0% 19.0%
전체		91 100.0%	329 100.0%	420 100%

지붕형태와 건축물의 파사드, 그리고 재료와 색채는 건축물 외관이미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 파사드는 입면의 패턴과 면적, 그리고 창호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외관이 형성되는데 분석 작업의 한계로 인하여 입면의 패턴과 창호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건축연도별 파사드 변화를 살펴보면<표 11>, 크게 면적요소 강조파사드와 점적요소 강조파사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가 연도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것과는 달리 건축물 파사드의 변화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형태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지붕과 박공지붕의 비율이 높고 연도별 지붕형태의 변화 역시 그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으나<표 12>, 2000년대로 갈수록 평지붕형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면중심축의 방향과 도로와의 관계, 즉 건축물의 배치방향에 대하여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표 13> 건축물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부지와 도로의 조건 등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

이 적지 않으나 건축물이 배치되는 기본적인 형태만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형태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지붕형태와 같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와 부지내의 외부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건축물 배치에 의한 부지내에서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단순히 전면도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건축물을 인접시킴으로서 부지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인자분석을 통한 건축디자인요소의 특징 분석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10개 항목에 대하여 함축적이고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항목을 중심으로 건축연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4>은 항목별 인자특점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에 사용된 10개 항목은 4개의 인자로 묶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인자들은 각 요인에 속한 항목의 공통점을 찾아 분석한 결과 제1인자는 면적과 관련되어 「건축물 규모」, 제2인자는 지붕재료와 지붕형태에 관한 것으로 인자특점이 비슷하지만 지붕의 형태에 따라 지붕재료가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지붕형태」 하였고 제3인자는 벽체마감 및 주조색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 항목은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것이어서 「입면재료」, 그리고 제4인자는 입면형태와 관련되어 「입면형태」의 인자로 규정하였다.

<표 14> 항목별 인자특점(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제1인자 (건축물 규모)	제2인자 (지붕형태)	제3인자 (입면재료)	제4인자 (입면형태)
건축물구조	-.059	.400	.004	-.664
벽체마감	-.004	.025	.842	-.136
주조색	-.198	-.066	.779	.102
지붕재료	-.022	.815	.061	-.128
지붕형태	.164	.825	-.002	.074
지붕마루방향	.154	-.560	.095	-.035
파사드	.089	.217	-.032	.766
부지면적(㎡)	.755	.097	-.223	.170
건축면적(㎡)	.944	-.021	-.079	.038
연면적(㎡)	.878	-.130	.023	-.008
기여율(%)	25.18	19.17	12.56	10.34
누계율(%)	67.25			

<표 15> 인자특점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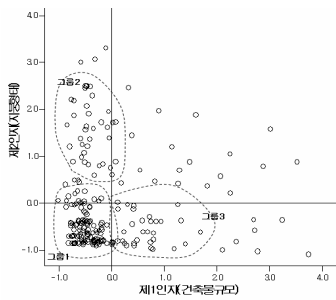
인자	특점의 의미
제1인자 (건축규모)	- (작음) <—————> (큼) +
제2인자 (지붕형태)	- (평지붕) <—————> (박공지붕) +
제3인자 (입면재료)	- (패인트종류) <—————> (타일종류) +
제4인자 (입면형태)	- (격자형 요소) <—————> (수평적 요소) +

아울러 이들 4개의 인자들은 각각 고유의 인자특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기여율, 즉 중요도가 높은 제1인자와 제2인자를 이용하여 개별 건축물의 인자특점 분포를 통해 전반적인 제주도내 건축물의 어떠한 특징이 파악하여 보았다. <그림 13>은 각 사례별 인자특점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군집형태에 따라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그룹1은 가장 많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평지붕 형태의 건축물로서 3개의 그룹중에서 평균 건축연도가 1994년 정도인 건축물군이며, 그룹2는 3개의 그룹중에서 건축물의 규모가 가장 크고 평지붕형태의 건축물군이며 평균 건축연도가 1990년 정도인 건축물군이다. 그리고 그룹3은 그룹1보다는 다소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지붕마감재료가 기와이며 형태 역시 박공모임 지붕형태로서 3개 그룹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평균 건축연도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6>은 각 그룹별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각 그룹별 지붕재료와 형태,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별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 16> 그룹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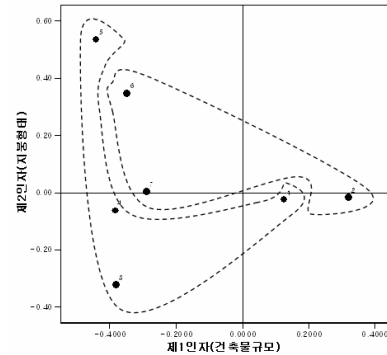
그룹명	지붕 재료	지붕 형태	건축 연도	부지 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 면적 (m ²)
그룹1	콘크리트	평지붕	1994	1050.30	952.51	358.36
그룹2	콘크리트	평지붕	1990	8005.90	5936.98	1999.79
그룹3	기와	박공모임	1986	1460.28	561.91	32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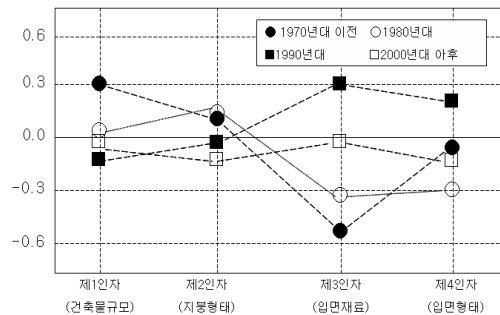
<그림 13> 용도별 인자특점 분포(전체)

행정구역별 특징을 살펴 본 결과<그림 14>,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거의 유사한 분포관계, 즉 건축물의 규모가 다른 행정구역보다는 크고 평지붕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구제주시와 구서귀포시를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의 경우도 평지붕의 비율이 높으나 구제주시와 구서귀포시에 비해 박공지붕형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볼 때, 지붕형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자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건축연도별 지붕과 규모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따라 각각 특징을 갖고

변화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통해 얻은 4개의 인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연도별 평균특점을 구하여 분포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4> 행정구역별 인자특점분포
(주: 1:구제주시, 2:구서귀포시, 3:조천읍, 4:한림읍, 5:한경면, 6:표선면, 7:대정읍)



<그림 15> 각 인자에 대한 건축연도별 평균특점분포(집단평균법)

<그림 15>는 각 인자에 대한 건축연도별 평균특점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의 경우 다소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있으나 큰 변화는 없고, 지붕형태에 있어서도 건축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입면재료의 경우 변화의 정도가 큰 편으로 대체로 페인트종류에서 타일 혹은 그와 유사한 재료종류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입면형태의 경우 격자형의 입면에서 수평적 요소로 변화되는 경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0년대에 들어 건축물의 다소 규모가 커지고 지붕형태에 있어서는 평지붕 성향이 많은 편이며 입면재료는 타일과 기타재료(비닐류와 유리 등), 특히 기타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면형태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식적 구조물이 없이 개구부만으로 구성된 점적요소 강조과사드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행정권역별로는 구제주시, 구서귀포 모두 평지붕의 비율은 거의 같으나 특히 구서귀포시의 경우 모임지붕, 볼트형 지붕, 기타 다른 형태의 지붕의 비율이 높고, 지붕의 마감재료에 있어서도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 비록 콘크리트의 비율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마감 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서귀포시 역시 콘크리트의 비율이 높으나 아스팔트씰글과 기와의 마감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행정구조개편 이전 건축심의위원회의 적용심의기준상의 차이점, 관광시설물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행정권역별 파사드에 있어서는 큰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파사드 보다는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많은 규제와 계획상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마감재료의 경우 페인트에 의한 마감의 비율이 높고 색상 역시 레드 계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색상을 혼용하고 있는 등 통일된 마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붕형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용도건축물에 있어서 박공형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축심의에 의한 영향도 적지 않게 작용했으리라 판단되며 가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건축의 규모와 주변 환경, 그리고 특히 대상건축물의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넷째, 건축물 배치에 있어서도 도로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형태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도로와 부지 내의 외부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건축물 배치에 의한 부지 내에서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단순히 전면도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건축물을 인접시킴으로서 부지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인자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붕형태는 건축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입면재료의 경우 변화의 정도가 큰 편으로 대체로 페인트종류에서 타일 혹은 그와 유사한 재료종류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입면형태의 경우 격자형의 입면에서 수평적 요소로 변화되는 경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붕형태, 파사드와 외부 마감 재료의 단순함, 도로에 대한 건축물 배치형태의 단순함에 의한 공간적 영역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건축물 외관과 가로 경관이미지 역시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특히 행정시설의 경우 공공건축물로서의 통일감을 갖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거지경관계획 수립과 건축심의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유도와 기준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최근 고밀고층문제, 개별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의 부조화 등 지역 정체성 확보에 대한 주거지경관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건축전문직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 관리수법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적용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이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심의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심의 대상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회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상구역이 고시되어 있다. 대상범위를 고려할 때 건축심의의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지역을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매주 실시되는 심의에 적지 않은 건축물을 심의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심의위원의 과도한 업무량증가와 심의내용의 부실, 심의본래의 목적인 미관 및 도시경관형성의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건축심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2009년 완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 및 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조망점과 주요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대상범위를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중점관리에 초점을 두어 도시 및 가로경관을 세심하게 관리하되 이외의 지역과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검토, 허가하는 방안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디터프린츠, 단지환경계획방법, 박찬부 역, 도서출판 국제, 2008
2. 박소영 외, 도시 상업건축물을 위한 입면 색채 계획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인포디자인이슈 Vol.- No.3, 2003
3. 박성진·임경화·이청용, 도시 가로경관에서 건축물 입면구성 유형과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Vol.22 No.6, 2006
4. 인진영, 건축물 외피 디자인과 연계된 집회 및 문화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 여의도 의사당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5. 윤중수, 이면도로변 소규모 건축물의 외부형태 연구 및 이를 적용한 계획안 : 법적제한에 따른 형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6. 송인호, 파사드의 형태적 연속성에 따른 색채분석, 디자인학연구 Vol.37, 2000
7. 조현득, 가로공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변건축물 형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3 No.1, 2010

[논문접수 : 2011. 06. 07]

[1차 심사 : 2011. 07. 12]

[개재확정 : 2011. 08. 05]